

예술의 전당 명공연 스크린으로 즐긴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상영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상영되는 연극 '메피스토' 공연.

26일 첫 작품 연극 '메피스토' 무대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마술피리' 등
영상으로 만든 9개 작품 무료 상영
강진아트홀선 내일 '명성황후' 상영

지난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자체 제작 작품을 영상으로 촬영해 스크린에서 상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로열발레단,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명 극장과 공연단체가 공연을 영상물로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국립극장의 'NT 라이브'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화제작을 만날 수 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전당에서 공연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영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SAC on Screen'(Seoul Art Center on Screen) 사업을 통해 현재 제작한 작품은 모두 12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국 80여개 공연장에서 지금까지 510회 상영됐으며 관객은 8만 4000여명이었다.

올해 광주에서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 다양한 공연의 감동을 스크린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6월말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SAC on Screen' 9개 작품을 무료 상영한다. <상영일시·작품명 표 참조>

실제 공연 모습을 관람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영상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많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10대 이상의 4K카메라로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무

대 구성 구성과 흥미로운 작품의 뒷이야기, 제작진, 출연진의 인터뷰도 만날 수 있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진행되는 연극 '메피스토'다. 국립극단이 지난 2014년 무대에 올린 '메피스토'는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정동환 등이 주연을 맡았다.

3월 18일에는 상영작은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가 헨델, 바흐, 텔레만 등 바로크음악을 들려주는 영상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이 기획한 '춤이 말하다'(3월25일)는 현대무용가 김설진, 발레의 김용걸과 김지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의 공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현대무용단의 작품으로는 이디트 헤르만이 안무한 '증발'(4월15일)도 만날 수 있다.

임현정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Sprit of Beethoven'(4월8일)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함께하는 '황제' 협연이 공연된다.

또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5월27일)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한 테너 김우경 등이 출연한 작품이며 황혜민·염태웅이 주역으로 출연한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6월24일)도 상영된다.

그밖에 6월에는 지난해 화제의 클래식 공연

■ 'SAC on Screen' 공연 일정

일시	작품	기획 및 단체
2.26	메피스토	국립극단
3.18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	베를린 필하모닉
3.25	춤이 말하다	국립현대무용단
4.8	Spirit of Beethoven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4.15	증발	국립현대무용단
5.20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5.27	마술피리	국립오페라단
6.17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본체로
6.24	지젤	유니버설발레단

*공연 시간: 오후 7시

이었던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6월17일)도 애호가들을 만난다. 연주 레퍼토리는 스크라빈의 '24개의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1번'이다.

예술의 전당은 올해도 양정웅 연출, 유인촌 출연의 연극 '페리클레스', 유니버설발레단의 '심정',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다 글리치&현악 7중주' 공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한다.

관람료는 무료로 선착순 100명을 예약받는 다. 문의 062-670-7941.

한편 강진아트홀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7시 '명성황후'가 상영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안부... 끝나지 않는 이야기'展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5일~3월24일

광복 71주년과 3·1운동 97주년을 기념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일본군의 반인류적 만행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열린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관장 이명환)이 '위안부'를 주제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전을 25일부터 3월24일까지 개최한다.

행사는 전시, 영상,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은 소녀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50cm 크기로 축소 제작한 것으로, 3월1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또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 사진, 작품 등을 수록한 패널도 선보인다.

교육실에서는 2014년 프랑스 앙골렘 만화전시회에서 출품된 애니메이션 '끝나지 않는 이야기'(M-line Studio)가 상영된다.

또한 '작은 소녀상 : 함께 앓은 우리'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도자기용 흙으로 관람객이 직접 소녀상의 빈 의자에 함께 앓을 점토상을 제작한다. '함께 앓은 소녀상'은 높이 15cm 조각상으로, 2011년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제작했다.

그밖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발간한 역사왜



곡교양서 시리즈 제 2권 '일본군 '위안부'', 알고 있나요?' 요약 유인물을 배부한다. 이화진 작가(예술집단 달의 뒷편)가 만든 전국 소녀상 위치안내 사진·지도 책자 '나비자리'도 볼 수 있다. 문의 061-334-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람꽃 봄소식

갤러리아크
3월 12일까지
김인수 개인전



'바람꽃'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김인수 교수가 3월12일까지 '김인수의 바람꽃'을 주제로 갤러리아크에서 18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갈대를 형상화한 신작을 발표한다. 김교수는 그동안 '풍경 속의 바람', '바람 : 풀밭에서' 등 풀과 바람을 소재로 한 작품을 꾸준히 선보였다.

김씨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캔버스 중앙에 꽃들

을 위치시켰다. 꽃은 가만히 있는 모습이지만 배경 속 흩날리는 잎, 깃털 등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형상이다. 한쪽으로 쏠린 붓터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김씨는 광주미술협회 이사, 전남도 관광문화분과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남미술교류 100인 초대전, 룬알프스 관광청 초대전(프랑스) 등 각종 전시회에 참여했다. 문의 062-671-12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50석 소극장 광주아트홀 내달 14일까지 대관 신청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광주아트홀이 상반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2년 11월 개관한 광주아트홀은 오페라, 뮤지컬,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해 왔다. 광주아트홀은 150석의 소공연장으로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혀 생생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징이다. 음향, 영상, 최신식 LED조명시설,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추고 있으며 분장실·대기실 등 부대시설도 준비돼 있다. 개관 5주년을 맞아 상반기 대관료 3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관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다. 문의 062-227-74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그린알로에